



[뉴스] 성인 68% 백신 1차 접종 '위드 코로나' 성공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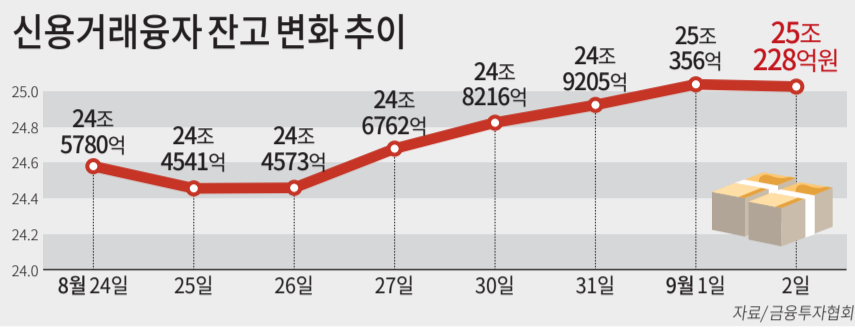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3201.06 (0.00)	코스닥	1053.85 (0.00)
금리 (미국 3년)	1.437 (+0.015)	환율 (원/달러)	1157.00 (-4.50) (3일)

'금리인상' 증시엔 미풍... 신용융자 25조 '빛투' 여전

신용거래융자잔고 25조228억 코스피 13.5조, 코스닥 11.4조 집계 이래 역대 두번째로 많아
이자 부담보다 투자소득 더 커 금리인상에도 6거래일 연속 ↑



기준금리 인상에 '빛투(빛내서 투자)' 규모가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75%로 25bp (1bp=0.01%포인트) 올렸지만 투자자들이 이자 부담보다는 투자 소득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5조228억 원이다. 코스피 시장 13조5786억원, 코스닥 시장 11조4442억원규모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란 개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을 말한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8월 18일 25조611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이에 따라 8월 19일에는 반대매매가 421억원으로 집계돼 1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반대매매란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이다.

이후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4조원대로 줄어 들었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6거래일 연속 증가했다.

올해 초 19조원대를 기록하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반년 새 6조원 가량 늘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통상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달 26일 이후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자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같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보다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도 시장금리 상승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빛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달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동결해 투자자들이 이자 부담보다는 투자 소득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연내 1~2회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채권시장에 선반영된 이슈"라며 "현재 0.75%의 기준금리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이전 기준금리인 1.25%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재건축 실거주 의무 없애니 전세물량 11% 증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정부의 규제가 철폐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11.4%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4개 자치구 중 전세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대문구(92.3%)였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 85건에서 4월 279건으로 3.3배 늘었다. 사진은 5일 은마아파트 일대 모습. /뉴스1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신고 기한 임박

폐업만 피하자... '코인마켓' 신고 가닥

금전 거래 없이 가상화폐만 거래한 실명계좌 없이도 사업자 신고 가능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9월24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는 차선책인 '코인마켓(금전 거래 없이 가상화폐 간 거래 시장)'으로 전환할 것인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각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등 요건을 갖춘 뒤 20여일 내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이달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실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2주 남짓이다.

이날까지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신고까지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

일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지난 7월말 기준 21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입출금 계정 확인서까지 확보한 곳은 국내 1위 업체인 업비트가 유일하며, 업비트는 이미 지난달 20일에 신고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시중은행과 실명계좌를 받아 운영해온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 발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실명계좌를 내줬던 NH농협은행(빗썸, 코인원)과 신한은행(코빗)이 지난달 현장 실사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마친 바 있다. 아직까지 두 은행이 계좌 발급 여부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부터는 협상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문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의 생존

여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고기한 연장 등 대책이 논의됐지만 금융당국에서 연장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마저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결국 이들 거래소들은 폐업만 피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원화마켓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전 거래 없이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한다면 실명계좌 없이도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확보가 최우선이지만 당장의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ISMS인증을 확보한 다수의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화마켓을 포기하면서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코인마켓의 운영만으로는 향후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영석 기자 ysl@

치열해지는 온라인 명품시장 저작권법 고발 등 경쟁 격화

명품시장 온라인 거래 10% 돌파 정품여부, 과대광고 논란 잇따라 업체 간 무단도용 소송도 휩싸여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명품 플랫폼 업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품 여부, 과대 광고 및 허위 표시 등을 둘러싼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 것.

5일 시장조사기관 유료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1조5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했다. 전체 명품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15년 8.6%에서 지난해에는 10.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명품 10개 중 1개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수준에 이르자 대표 명품 플랫폼들은 서로서로 자신들이 '정품'만을 판매하는 회사라며 강조하고 나섰다.

해외 명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공식 수입 판매'는 브랜드와 정식 계약으로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수입업체가 투명한 유통 절차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이다. '병행수입'은 개인이나 일반업체가 해외 매장에서 이미 판매된 명품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이며,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구매를 대신해주는 것을 말한다.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주요 명품 브랜드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으니 병행수입과 구매대행 등을 채택해 운영하는 복합적 유통 구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품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저마다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관해 머스트잇은 최근 "업체의 이력이나 거래 내역 등을 까다롭게 확인하고 지나치게 많은 물량이나 과도한 가격 할인의 경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란도 "병행 수입업체의 매출 규모나 수입 내역을 확인해 등급을 부여, 상위 단계 업체 제품만 취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2면에 계속)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與,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이준석 시간끌기... 진상 밝혀야"
▲ 추격 급한 이낙연... 부인 김숙희 1차 슈퍼위크 앞두고 '구원' 등판 /사진 뉴스1

▲ 윤석열 측, 역선택 조항 "입장 변경 없다"
▲ 유승민 "영덕 전통시장 화재, 정부가 신속히 지원해야"



▲ 김기현 국힘 원내대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낙하산 상황판'" /사진 뉴스1
▲ 軍 내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확진자 1641명